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articipation's Status and Promotion Plan of Senior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현다경\*, 김형모\*\*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a-kyung Hyun(gusekrud@hanmail.net)\*, Hyung-mo Kim(hkim66@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근로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실태 분석 결과, 주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업을 알게 되어 공익형에 대다수인 약70%가 참여하고, 단기간 경제적 소득보전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 사업참여 기간과 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기간의 신축적·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업이 노년생활에 일정부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참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참여 정도 및 실태 등에 따라 노인의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감 등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노인 사회활동 | 노인 일자리 | 참여실태 | 참여효과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of seniors that participate in senior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and analyze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participation satisfaction based on participant attributes.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status, participating seniors became aware of the project through facilities and about 70% participated in the public interest type; the primary goal was for a short-term financial preservation. As an analysis result on participation effectiveness, longer participation period and time affected the participation seniors' working conditions and self-esteem negatively, implying that a flexible and effective operation of participation period is necessary. Also, while seniors with financial stability were more positively affected on their subjective satisfaction, other significant variables had negative effects.

This study holds a significance in providing 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basic data to improve and vitalize future senior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effectiveness, such as working conditions, self-esteem and subjective satisfaction based on participant attributes, including participant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status and participation degree.

■ keyword : | Senior Social Activity | Senior Job | Participation Status | Participation Effect |

## I. 서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는 13.1%에 이르고 2030년에는 24.3%로 인구 4명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의학 및 과학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노인들이 뚜렷한 역할 없이 피부양자의 입장만 되어 사회에 부담이 될 것이다[2]. 100세 시대의 도래가 오히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고령층의 경제력 상실이 고령사회진입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소득증가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노인복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련의 지역 노인 고용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3].

최근 고령화와 수명의 증가로 전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들이 노년기를 의미있고 행복하게 지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은퇴 이후 최소 20여년 이상을 노년기로 보내야 하므로 긴 노년기를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적극적 계획이 요구된다[4].

노인이 되면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은퇴를 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배우자와의 사별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 경제적 소득이 낮아지게 되며 노동시간과 사회활동의 변화도 겪게 되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은퇴 부모세대들은 자식에게 지지를 기대하며 한국인들은 이런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5]. 또한 미국의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서도 노인들이 죽음에 가까울수록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6].

또한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독과 역할상실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독립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차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일을 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7].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이 일반적으로 감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8]. 반면, 법적 강제 은퇴는 노인들의 일자리 나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강제 은퇴는 노인 고용시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노인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9].

이런 배경으로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노동기회 보장,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10]. 10여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오다 2015년부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사업)으로 명칭 개편과 함께 공익활동, 일자리(취업·창업) 등 다양한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활동 유형별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구조화 되었다[11].

사업개편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여러 사업유형으로 확대되었고, 노인의 참여 확대 등 양적 팽창도 이루어졌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사업을 꾸준히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노인일 자리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등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자리 요구에 대한 충족률이 낮으며,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개발되지 못해 계층 포괄성 및 일에 대한 노인 욕구의 다양성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4].

지금까지는 노인일자리 수와 사업 목적의 효율성만 강조하였으나, 향후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참여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12]. 질적인 성장을 측정하는 데에는 경제적, 건강, 주관적 인식의 효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Hiroki[13]에 따르면 일하는 곳에서 훈련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노인과 젊은 층 모두에게 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령자의 일자리는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늦추고 연금지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부족을 완화시키고 고용을 통한 자립으로 사회보장 지출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14].

이런 이유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그 규모와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15]. 앞으로 미래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요인들이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찰과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16].

이런 필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는 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며, 사업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들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업 참여에 따른 근로여건을 파악하였다. 셋째, 신체·건강적 측면, 경제적 측면, 가족 및 사회관계, 자아존중감 등 사업 참여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사회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17][18].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려는 목적을 지닌 생산적 복지형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사업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유형을 운영하며, 이 사업들은 자립가능성과 예산지원 방식 등에 따라 크게 사업 공헌형 사업과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구분되었다[19].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제23조, 제23조의 2)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정부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하였다[15].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10여 년 동안 노인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에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중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공익활동, 일자리(취·창업)등 다양한 노인의 활동욕구를 반영하고, 활동 유형별로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였다[11]. 사업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구분	유형	설명	비고
공익 활동형	전국형 (전국공동, 1개 프로그램)	노인 사회활동지원 예산에서 참여노인 활동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지원	월30시간 이상 12개월, 9개월 활동 월 20만원
	지역형 (지역선택, 30개 프로그램)		월30~35시간 9개월 활동 월20만원
재능 나눔형	취약·학대노인 발굴, 교육, 상담	노인 사회활동지원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	월15시간 이상 6개월 활동 10만원
취업·창업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 사회활동지원 예산에서 부대 경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	사업단 운영규정에 의함
	고령자친화기업		
경력 유지형	시니어직능클럽		해당 기업체 운영규정에 의함
자원 봉사형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	노인단체지원 예산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 2015표 재구성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월 20만원으로 보수가 낮다. 활동시간이 1일 3~4시간, 1주 3~4일로 1개월 36~40시간만 활동하고 단순 업무 위주이기 때문이겠지만,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지원수준이 낮은 편이다. 정부 지원이 민간노동시장의 정규임금조건과 같은 수준일 수는 없으나, 정규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 수준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20].

최근 한국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 이후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취업률은 28.9%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21].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개인의 건강 증진, 경제적 자립효과, 사회 참여 증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22].

이와 같이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소득보장뿐 아니라 사회참여적인 동기를 가진 노인들로 하여금 적게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향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심리·사회적 효과 면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다[23].

## 2.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특성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는 크게 사업 효과성 연구, 사업참여에 따른 주관적 효과 인식 연구,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업 효과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로, 임우석은 사업참여 동기, 사업유형, 참여시간 등 참여특성과 사회적 관계 간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보수와 근무시간의 조정, 다양한 노인 참여 기회 제공, 참여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

였다[24]. 이환범은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예산투입률 대비 참여노인의 의료비, 빈곤율, 노인 일자리 증가율 변화 측정을 통해 효과성을 측정하였다[25]. 사업참여로 의료비와 노인 빈곤율은 일정부분 감소하였으나, 투입 예산 대비 노인 일자리 수 증가율이 낮고, 국비에 비해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아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선과 강은선은 사업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이외에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간 효과성을 평가하였다[26]. 기존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정연자와 전정수[27]는 사업의 참여유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형 참여자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기적 소득효과는 공익형과 복지형이 높고, 중장기적 신뢰효과는 시장형, 규범과 네트워크 효과는 교육형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김수영, 이민홍, 손태홍[28]은 동일집단의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의 심리사회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사회적 건강은 효과가 있었으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관련된 연구로, 황미구와 김은주[8]는 사업 참여가 노인의 인지능력, 자아존중감, 우울감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경진과 황선영[29]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사업 참여 노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혼인과 건강상태, 행복감, 구직활동여부, 급여수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영과 김진숙[30]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여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일의 의미 요인에 따라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검증경로에서 부양기대태도라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빈곤노년층의 생계부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년기

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 일의 의미, 부양기대 태도는 참여노인 삶의 의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년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신제와 조자영[31]은 사회적 지지, 정서문제와 삶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 영향을, 정서문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은 정서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을 통하여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용선과 최명주[32]는 노인인턴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과 함께 그 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이원식[33]은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전략으로,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와 같이 시도 광역단위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기초단위의 노인일자리 실시기관을 지원하는 광역단위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를 제안하였다. 최성희[34]는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의 취업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퇴직 연령 상향화, 노인 고용 사업체에 혜택 보장, 대규모 사업체에 노인 고용 의무화 등을 주장하였다. 유용철, 이훈희, 정운태[35]는 참여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함석주[36]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인력개발 전담부서 설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지원 확대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 기능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확산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사업 시행 후 객관적 관점에서 사업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사업참여 노인의 주관적 만족도나 행복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효과성, 주관적 만족도, 사업활성화 방안 제시 등 단편적 분석이란 현실적 한계

를 보이고 있다.

표 2.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

구분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사업 효과성 연구	조준행외 (2007)	노인 4고(빈곤, 건강, 역할상실, 소외) 해소 목적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37]
	임우석 (2008)	사업참여 동기, 경제적 만족도 등 효과성 분석(소득보전 필요 주장)[24]
	이환범 (2010)	투입예산대비 노인 일자리 증가율 낮고, 지방비 부담 비율 높음[25]
	김영선외 (2011)	보충적 소득보장, 건강측면 사업 효과성 평가[26]
	박용두외 (2013)	셀프리더십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성과 간 효과 [38]
	정연자외 (2014)	사업유형별 참여효과 분석[27]
	김수영외 (2015)	심리사회적 건강과 사회관계 효과성 측정[28]
2.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양숙외 (2015)	참여정도와 참여지속의사 간 효과성 측정(참여만족도 매개변수)[39]
	최은희 (2007)	참여특성이 삶의 질(신체건강, 우울,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40]
	황미구외 (2008)	참여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삶, 직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8]
	김옥희 (2009)	참여특성과 주관적 행복감 관계 분석[41]
	이경진 (2009)	노인 만족도 영향요인(훈인, 건강상태, 행복감, 구직 활동, 급여수준)[29]
	함철호외 (2010)	사회적 관계 개선 효과 분석[42]
	이재영외 (2012)	참여특성과 일의 의미, 부양기대태도 간 관계[30]
3.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장신제외 (2014)	사회적지지 정서문제와 삶의 질 관계 분석[31]
	최재원 (2015)	참여의향 및 참여에의 영향요인 분석[43]
	나용선외 (2004)	노인인턴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제언[32]
	이원식 (2005)	광역단위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제안(기초단위 수행기관 지원역할)[33]
	최성희 (2008)	사업활성화 방안 제언(홍보 강화, 다양한 노인일자리 탐색 등)[34]
	유용철외 (2010)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제언[35]
	함석주 (2010)	노인인력개발 전담부서, 노인일자리사업 기관 설치, 지원 확대 제언[36]
김경혜 (2011)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복지적 차원의 접근 필요[44]	
조윤주 (2011)	정시간 참여보다 참여 안배를 통한 노인의 참여기회 보장 필요[45]	

본 연구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우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실태, 인권문제 등 참여노인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건강, 경제, 배우자 및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여가생활, 자아존중감 등 근로여건 및 주관

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사업의 참여 정도, 참여 효과 인식, 사업 참여 시 근로여건 및 인권문제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표본선정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전국단위의 노인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안배를 하여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발된 총 71명의 노인지킴이단 노인들이 설문대상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1일~2015년 9월 10일까지로 약 두 달에 걸쳐 진행하였다. 총4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그 중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16사례를 제외한 384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항목은 아래 [표 3]과 같이 크게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업참여 정도, 근로여건 및 인권 실태, 참여효과인식 등 4부분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설문지 항목 및 구성

구분	문항	척도 및 선다형	Cronbach α
응답자 일반적 특성	11	2~17지선다형 및 서술	.015
참여정도	6	5~7지선다형 및 서술	.227
근로여건 및 인권문제 실태	24	2~6지선다형 및 서술	.444
참여효과인식	19	3~6지선다형 및 서술	.771
계	60	-	.464

#### 2. 연구설계 및 분석모형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적인 Cronbach α계수는 74.9%로

신뢰도가 아주 높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Cronbach α값을 보면, 사업참여에 따른 근로여건 만족도의 Cronbach α값은 70.1%, 자아존중감은 70.6%, 주관적 참여만족도의 Cronbach α값은 65.2%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 즉,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업참여 실태, 근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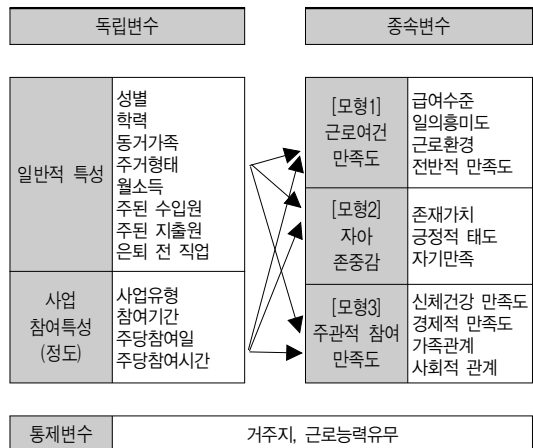
셋째, 사업 참여노인의 근로여건 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건강, 경제적 만족, 가족 및 사회관계 등 주관적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사업참여 특성(정도)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권규영과 박공식, 김세진과 문수경, 박양숙, 송진영, 박용순등도 사업참여 특성의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22][46][39].

근로여건 만족도(모형1)는 [46]의 연구에서도 하위측정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모형2)과 주관적 참여만족도(모형3)는 이환범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효과성으로 하위측정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25].

이상의 통계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21.0을 활용하였다. 아래 [표 4]는 분석을 위한 변수설정 및 연구모형이다.

표 4. 변수설정 및 연구모형



#### IV. 분석 결과

##### 1.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5]와 같다. 대상 노인 평균 연령은 72.9세로 나타났다. 최소 60세부터 최고 92세까지 분포를 보였고, 대체로 7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은 남자가 42.4%, 여자가 57.6%로 여성 노인이 15.2%정도 많았으나, 최근 여성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남성 노인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별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6.1%, 강원권 4.9%, 충청권 14.6%, 호남권 22.7%, 영남권 36.5%의 순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0.5%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비슷했고, 대학이상은 13.8%, 무학도 6.6%로 비교적 학력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동거형태는 부부만 같이 사는 노인이 41.4%로 주를 차지하였고, 혼자 사는 경우도 35.7%나 되었다. 결국 혼자 또는 부부끼리 사는 노인의 비중이 77.1%로 핵가족화로 인해 대다수의 노인들이 외롭고 적절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로능력 정도는 근로가능이 57.3%, 단순근로 가능 39.6%, 단순근로 미약자(집안일만 가능) 2.3%, 근로능력 없음이 0.8%로 대체로 96.9%가 여전히 근로를 할 수 있어 사회참여가 가능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주거형태는 자가 70.1%, 전세 14.1%, 월세 10.7%, 영구임대 3.1%로 3분의 2 이상이 자가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층에서는 젊은 세대와 달리 자가소유 개념이 우선시 되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보면, 월소득 50만 원 미만이 53.4%, 소득 없음이 12.2%로 65.6%의 노인이 기초생활수준 이하로 생활하고 있음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실제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선진국 중 1위라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노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 중 주된 수입원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등 자체수입이 56.8%이며 개인연금 등은 9.1%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적연금(기초 및 국민연금 등)이 34.1%로 개인연금 등보다도 노후 생활에 더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된 지출원 역시 대부분의 노인들은 의료비 및 약값에 46.9%, 식비 및 경조비에 27.7%와 주거비 및 난방비에 16.4%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의식주 해결에 수입의 90%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은퇴 전 직업은 자영업이 26.0%, 사무직 및 기술직 19.3%, 전문직 및 자유직 13.5%, 농업·어업·임업이 6.0%, 기타가 35.2%로 나타나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퇴 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노후보장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 전 직업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백분율 (빈도)	구분	백분율 (빈도)	
성별	남자	42.4(163)	월 소득	50만원미만	65.6(252)
	여자	57.6(221)		50만원 ~100만원	15.4(59)
연령	60대	24.7(95)	100만원 ~150만원	9.1(35)	
	70대	68.2(262)	150만원이상	9.9(38)	
	80대이상	7.0(27)	자체소득 개인 /특수연금	56.8(218)	
학력	무학	6.5(25)	주된 수입원	공적연금	34.1(131)
	초졸	25.5(98)		의료비	46.9(180)
	중졸	23.7(91)		교통비	2.3(9)
	고졸	30.5(117)		주거/난방비	16.4(63)
동거 형태	독거	35.7(137)	주된 지출원	식/경조비	27.7(106)
	부부	41.4(159)		공과금 등	6.8(26)
주거 능력	자녀	10.4(40)	은퇴 전 직업	1차산업	6.0(23)
	손자/부모 등 과 동거	12.5(48)		자영업	26.0(100)
	자가	70.1(269)		사무직 /기술직	19.3(74)
	전/월세	24.8(95)		전문직 /자유직	13.5(52)
	임대 등	5.2(20)		기타	35.2(135)

##### 2. 참여 실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는 노인복지

관, 시니어클럽 등 관련 시설을 통해 알게 되었다가 절반 이상인 54.2%(208명)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가족, 이웃,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7.9%(107명)로 나타났다. 즉, 관련 시설에서의 mouth-to-mouth가 사업에 대한 주된 인지경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유형에는 공익형이 69.5%(26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취업활동형 16.4%(63명)이다. 노인의 전반적인 참여유형은 공익형에 해당되었지만, 그 외 유형의 사업에도 다양하게 참여 될 수 있도록 참여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참여하고 기간에는 3~9개월 미만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7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일시적인 기간에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뿐 지속적 참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당 근로일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3일 근로한다는 응답자가 58.9%(22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주 2일 이하 근로노인도 26.0%(100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주 3일 이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1일 근로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시간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78.6%(30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 초과~8시간 이하는 18%(6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노인이 4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과 근로시간이 주로 단기간과 단시간으로 나타나 앞으로 노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6.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실태

구분	변수	빈도율(명)
인지경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시설을 통해	54.2(208)
	가족, 이웃, 친구 등 지인을 통해	27.9(107)
	시군구(읍면동) 관공서 및 공무원	12.8(49)
	신문, 방송(TV)등 대중매체	3.4(13)
	기타	1.8(7)

참여 사업유형	공익형	69.5(267)
	재능나눔형	3.4(13)
	취업활동형	16.4(63)
	창업활동형	9.9(38)
참여기간	경력유지형	.8(3)
	3개월미만	7.3(28)
	3개월이상~6개월미만	36.5(140)
	6개월이상~9개월미만	42.2(162)
참여일	9개월이상	14.0(54)
	주당 2일이하	26.0(100)
	주당 3일	58.9(226)
참여시간	주당 4일이상	15.1(58)
	4시간이하	78.6(302)
	4시간초과~8시간이하	18(69)
	8시간초과	3.4(13)

### 3. 근로여건 및 인권 실태

현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로 받는 평균 임금은 대부분이 20만원으로 78.6%(302명)였고, 30만원도 2.9%(11명)가 있었다. 원하는 희망임금은 30만원이 55.2%(212명)로 절반 이상이었고 30만원 초과 희망 노인도 29.4%(113명)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자의 4대 보험 가입 유무를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의 경우만 가입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가입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에 의거<sup>1)</sup>,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인권문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에서 차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95.8%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업장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노인도 약 80% 정도로 나타났다.

사업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로, 응답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사업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은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경제적 소득 향상이 무려 63.8%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이 된다면 거의 전체 응답자 노인이 재참여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된 관심사가 경제적 소득향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7. 근로여건 및 인권실태

구분	변수	빈도율(명)	
희망 임금	30만원미만	15.3(59)	
	30만원	55.2(212명)	
	30만원초과	29.4(113명)	
4대 보호	국민연금	가입	15.9(61명)
		미가입	65.4(251명)
		모르겠음	18.8(72명)
	건강(의료)	가입	35.9(138명)
		미가입	50.3(193명)
		모르겠음	13.8(53명)
개선 방향	소득향상	63.8(245명)	
	건강증진	19.0(73명)	
	사회참여	17.2(66명)	
인권 침해	있다	3.9(15명)	
	없다	95.8(368명)	
사업장 안전성	안전하지않음	3.4(13명)	
	보통	18.0(69명)	
	안전	78.6(302명)	
산재 보험	가입	50.8(195명)	
	미가입	39.6(152명)	
	모르겠음	9.6(37명)	
고용 보험	가입	19.8(76명)	
	미가입	63.8(245명)	
	모르겠음	16.4(63명)	
재참여 여부	예	99.0(380명)	
	아니오	1.0(4명)	

#### 4. 참여정도와 참여 만족도 간 상관관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정도와 주관적 참여 효과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사업 참여유형 중 취업활동형과 상관성이 있는 참여 효과에 대한 변수는 일의 흥미도( $r=-.127, p=.013$ ), 근로 환경( $r=-.146, p=.004$ )으로, 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 중 주당 참여일수는( $r=-.184, p=.000$ ), 근로 환경( $r=-.175, p=.001$ ), 전반적 만족도( $r=-.162, p=.001$ ), 존재가치( $r=-.123, p=.016$ )은 모두 부(-)의 상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 중 1일 참여시간은 긍정적 태도( $r=-.103, p=.043$ ), 참여효과인식( $r=-.143, p=.005$ )으로 모두 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여정도와 주관적 참여 만족도 간 상관관계

구분			근로여건 만족도			자아존중감		참여 효과 사회 관계
			일의 흥미	근로 환경	전반 만족	존재 가치	긍정 태도	
참여 유형	취업 활동 형	Pearson 상관계수	-.127*	-.146**	-.055	-.001	-.032	-.019
		유의확 률 (양쪽)	.013	.004	.280	.982	.532	.705
		N	384	384	383	383	384	384
참여 기간	주당 참여 일수	Pearson 상관계수	-.184**	-.175**	-.162**	-.123*	-.056	-.099
		유의확 률 (양쪽)	.000	.001	.001	.016	.277	.053
		N	384	384	383	383	384	384
1일 참여 시간	1일 참여 시간	Pearson 상관계수	-.098	-.050	-.042	-.079	-.103*	-.143**
		유의확 률 (양쪽)	.055	.333	.415	.124	.043	.005
		N	384	384	383	383	384	384

(\*\*p<0.01, \*p<0.05)

#### 5.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참여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사업 참여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업유형, 사업 참여 기간 및 시간, 성별, 학력, 동거가족, 주거형태, 소득수준, 주된 수입원, 주된 지출원, 은퇴 전 직업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 간 관련성이 있고, 종속변수에의 설명력, 회귀모형의 적합도, 회귀계수 유의확률 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을 발견하기 위해 단계입력방식을 사용하였다. 변수 진입기준은 0.05, 제거기준은 0.10으로 설정하였다. 사업유형, 성별, 학력, 동거가족, 주거형태, 주된 수입원, 지출원, 은퇴 전 직업과 같은 명목척도는 범주형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사업참여에 따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근로여건 만족도(급여수준, 일의흥미도, 작업환경 안전성, 일자리 만족도), 자아존중감(존재가치, 긍정적 태도, 자기만족), 주관적 참여 만족도(신체건강, 경제적,

가족관계, 직업, 사회관계) 측면에서 하위요인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수는  $r=.501$  이하이며, 분산팽창계수(VIF)도 모두 10보다 현저히 낮고 허용오차(공차한계)도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5.1 근로여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사업참여 특성에 따른 근로여건 만족 간 분석결과를 표 9와 같다.

첫째, 급여수준의 만족도에는 은퇴 전 직업이 자영업과 고등 학력수준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에 투입되었다. 학력수준이 고졸이고 은퇴 전 자영업에 종사했던 노인일수록 급여수준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독립변수의 유의확률은 0.059~0.944로 유의수준( $p<.05$ )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회귀식에서 제외되었다. 즉 [39]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초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는 생계유지가 목적이며, 중졸~고졸의 경우 용돈을 벌기 위하여 또 대졸은 여가선용이 일자리 참여의 계기로 상황에 따라 용돈벌이 또는 생활비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또한 [30]선행연구도 농축산업에 종사한 경력의 소유자가 삶의 의미가 높았으며 자영업 종사자가 가장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가 급여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은퇴 전 자영업, 고졸 학력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 모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정회귀식은  $Y=2.866-.249X_1$  (은퇴 전 자영업) $-.219X_2$  (고졸학력)로 표현된다. 이는 다른 변수 값이 동일하다면 은퇴 전 자영업 종사자는 사업참여를 통해 0.249만큼 급여수준을 낮게 느끼고, 고졸학력 노인은 0.219만큼 낮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의 흥미도에 미치는 변수로 남자, 주당 사업참여일수, 취업활동형 참여노인이 유의미하였다. 일의 흥미도에 있어서 취업활동형, 남성 노인, 주당 사업참여

일수 순으로 일의 흥미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취업활동형에 종사하는 남성이면서 주당 사업참여일수가 길수록 부(-)의 방향으로 일의 흥미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작업환경의 안전성은 무학 학력수준, 취업활동형, 자가거주, 주당 사업참여일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무학수준의 낮은 학력의 노인은 작업환경의 안전도를 높게 인식하였으나, 반면 취업활동형에 참여하고 자가 거주하면서 주당 사업참여일수가 길수록 부(-)의 영향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주된 지출을 식비나 경조비로 소비하는 노인은 정(+)의 영향을 나타낸 반면, 주당 사업참여일수는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결국, 앵겔계수가 높은 노인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적 높게 인식했으나, 참여일수가 긴 노인은 일자리 만족도를 낮게 인식했다.

표 9. 사업참여와 근로여건 만족도 관계 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베타	t	p-value
급여수준	(상수)	-	48.543	.000***
	은퇴전직업(자영업)	-.124	-2.446	.015*
	학력(고졸)	-.114	-2.250	.025*
	R <sup>2</sup> =.030, adj R <sup>2</sup> =.025, F=5.864(.003)***			
일의 흥미도	(상수)	-	34.027	.000***
	주당사업 참여일수	-.156	-3.084	.002**
	성별(남자)	-.124	-2.484	.013*
	취업활동형	-.103	-2.060	.040*
R <sup>2</sup> =.060, adj R <sup>2</sup> =.053, F=8.091(.000)***				
작업환경인전성	(상수)	-	31.644	.000***
	주당사업 참여일수	-.164	-3.258	.001**
	취업활동형	-.118	-2.348	.019*
	학력(무학)	.101	2.012	.045*
R <sup>2</sup> =.067, adj R <sup>2</sup> =.057, F=6.820(.000)***				
일자리 만족도	(상수)	-	34.179	.000***
	주당사업 참여일수	-.162	-3.240	.001**
	주지출원(식/경조비)	.130	2.598	.010*
	R <sup>2</sup> =.043, adj R <sup>2</sup> =.038, F=8.628(.000)***			

\*\*\*p<.001, \*\*p<.01, \*p<.05

### 5.2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사업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우선, 자아존중감 중 존재가치에 미치는 영향변수로 전세의 주거형태와 주당 사업참여일수, 은퇴 전 직업이 전문자유직 종사노인이 회귀식에 진입되었다. 그 외 독

립변수의 유의확률은 0.098~0.919로 유의수준(p<.05)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회귀식에서 제외되었다.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가 존재가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은퇴 전 직업, 전세거주 노인, 주당 사업참여기간 순으로 나왔다. 은퇴 전 전문가유직에 종사한 노인은 정(+의 방향인 반면, 나머지 두 변수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정 회귀식은  $Y=2.470+.193X_1$  (은퇴전 전문가유직)-.191X<sub>2</sub> (전세거주)-.061X<sub>3</sub> (주당참여일수)로 표현된다. 이는 다른 변수값이 동일하다면 은퇴전 전문가유직 종사노인은 사업참여를 통해 0.193만큼 존재가치를 더 느끼고, 전세주거 노인은 0.191만큼 존재가치를 낮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변수는 은퇴 전 농어임업에 종사한 노인과 나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두 부(-)의 관계로 농어임업 종사경험 노인과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 태도를 다소 낮게 느꼈다.

그리고 자기만족수준은 주된 지출원이 식비나 경조비인 노인과 중학교 졸업수준의 비교적 낮은 학력의 노인일수록 자기만족이 높았고, 주당 사업참여기간이 길수록 자기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업참여와 자아존중감 관계 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베타	t	p-value
존재가치	(상수)	-	26.168	.000***
	주당사업 참여일수	-.105	-2.070	.039*
	주거형태(전세)	-.113	-2.234	.026*
	은퇴전 직업(전문가유직)	.112	2.225	.027*
	R <sup>2</sup> =.040, adj R <sup>2</sup> =.032, F=5.887(.016)*			
긍정적 태도	(상수)	-	2.425	.016*
	은퇴전직업(농어임업)	-.118	-2.317	.021*
	나이	-.113	-2.223	.027*
	R <sup>2</sup> =.024, adj R <sup>2</sup> =.019, F=4.703(.010)*			
자기만족	(상수)	-	23.376	.000***
	주지출원(식/경조비)	.155	3.077	.002**
	학력(중졸)	.132	2.632	.009**
	주당사업 참여일수	-.106	-2.114	.035*
	R <sup>2</sup> =.048, adj R <sup>2</sup> =.040, F=6.346(.000)***			

\*\*\*p<.001, \*\*p<.01, \*p<.05

자아존중감 관련 추정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

통계량은 4.703~6.346(유의확률 .000~.016)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계수 R<sup>2</sup>은 0.024~0.048로 종속변수에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모두 허용오차(공차)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 VIF가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3 주관적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아래 [표 11]은 사업참여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이다.

우선 신체건강 만족도는 주된 지출원을 의료비나 약값으로 지출하는 변수가 유의하게 회귀식에 투입되었다. 주로 의료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건강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인 F통계량은 10.505(유의확률 p=.001)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40]의 결과에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 초졸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로 월 소득수준, 전세거주노인, 은퇴 전 농어임업에 종사한 노인이 유의미하였다. 경제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소득수준이 훨씬 크게 나왔다. 월 소득수준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세형태 거주노인과 은퇴 전 직업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노인일수록 경제적 만족이 낮았다. 이는 참여특성과 급여수준에 대해 적절히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29].

셋째, 가족관계의 만족도 역시 주로 의료비로 지출하고 학력수준이 낮으며, 1일 참여시간이 많은 노인일수록 부(-)의 영향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사회관계적 측면은 성별, 1일 근로참여시간 순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남성 노인으로 1일 근로에 많이 참여할수록 사회관계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41] 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중 건강상태만이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한 분석 결과, 경제적

만족도와 소득수준만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기타 주관적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1. 사업참여와 주관적 만족도 관계 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베타	t	p-value
신체 건강	(상수)	-	64.647	.000***
	주지출원 (의료비등)	-.164	-3.241	.001**
R <sup>2</sup> =.027, adj R <sup>2</sup> =.024, F=10.505(.001)**				
경제적	(상수)	-	22.155	.000***
	월소득	.148	2.907	.004**
	주거형태 (월세)	-.108	-2.140	.033*
	은퇴전직업 (농어임업)	-.101	-2.015	.045*
R <sup>2</sup> =.053, adj R <sup>2</sup> =.046, F=7.153(.000)**				
가족 관계	(상수)	-	32.262	.000***
	주지출원 (의료비등)	-.131	-2.582	.010*
	학력(무학)	-.107	-2.104	.036*
	1일 참여시간	-.102	-2.036	.042*
R <sup>2</sup> =.042, adj R <sup>2</sup> =.034, F=5.538(.001)**				
사회 관계	(상수)	-	42.008	.000***
	성별(남자)	-.160	-3.187	.002**
	1일 참여시간	-.146	-2.924	.004**
R <sup>2</sup> =.046, adj R <sup>2</sup> =.041, F=9.165(.000)**				

\*\*\*p<.001, \*\*p<.01, \*p<.05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실태와 근로 여건을 파악하고, 신체적, 경제적, 가족사회관계,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주관적 참여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운영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된 참여노인 3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정도, 근로여건 및 인건문제 등 참여 실태를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업의 인지경로는 절반 이상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관련 시설을 통해 알게 되었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유형은 공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사업 참여기간은 3~9개월 미만, 주당 3일 미만 참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시적인 기간에만 사회활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특성 상 은퇴 후 지속적인 근로보다는 경제적 삶의 질 향상과 개인 여가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런 니즈를 반영한 제도적·정책적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참여로 받는 월 임금은 20만 원이 80%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개선방향 중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항목 또한 경제적 소득 향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된다면 재참여할 의사가 있는 노인이 거의 100%로 나타난 점이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사업참여에 따른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도 등 참여효과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유형, 참여기간, 성별, 학력, 가족 및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 참여자 특성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참여만족도의 하위변인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근로여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급여수준의 만족도는 고졸의 학력과 은퇴 전 자영업에 종사했던 노인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의 흥미도 역시 취업활동형에 참여하고 주당 참여일수가 많은 남자노인일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작업환경의 안전성도 주당 사업참여일수가 길고, 취업활동형과 학력이 낮은 노인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자리의 전반적 만족도는 주당 사업참여일수가 길수록 낮게 인식한 반면, 식비나 경조비로 지출이 많은 노인일수록 사업참여를 통해 지출항목에 대한 소득보전을 하는 이유로 일자리 만족도를 다소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사업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요인 중 존재가치에 미치는 영향변수는 전세로 거주하고, 주당 참여일수가 길수록 존재가치를 낮게 인식했다. 그러나 은퇴 전 전문자영업에 종사했던 노인은 존재가치 측면에서 사업 참여에 대해 다소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은퇴 전 농·어·임업 등 1차 산업 종사노인이고 나이

가 들수록 긍정적 태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낮은 학력인 중졸의 노인과 식비, 경조비에 주로 지출하는 노인일수록 자기만족수준이 높았고, 주당 사업참여기간이 길수록 자기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여건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참여기간과 시간은 고령인 노인들의 생활패턴과 니즈에 맞게 신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자아존중감과 근로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도출할 수 있다.

끝으로, 사업 참여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일수록 신체 건강 만족도가 당연히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만족도는 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월세 형태와 은퇴 전 직업이 1차 산업에 종사했던 노인일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 역시 학력수준이 낮고 의료비 지출이 많으며, 참여시간이 길수록 낮게 나타났다. 사회관계적 측면은 1일 근로를 많이 참여하는 남성 노인일수록 사회관계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에만 소득수준과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주관적 효과인식의 유의미한 변수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경제적 여유가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운영 현황과 참여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사업 참여에 따른 노인들의 특징과 선호하는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참여노인들의 사업에 대한 니즈와 희망사항에 따라 사업의 운영적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인지, 단시간의 참여기간, 사업의 참여목적은 경제적 소득보존 등의 참여실태에 초점을 맞춰 향후 사업의 개선 및 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노인의 특성과 참여정도에 따라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참여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

다. 이는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참여만족도 등 참여노인의 사업에 대한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어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향후 참여노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광역권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지역으로 나누어 사업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로 지방의 중소형 도시 수준까지 참여노인의 심층적 인터뷰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통계청, 2014.
- [2] 임은의, 이종남, 박보영, “노인 사회활동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4권, 제1호, pp.45-66, 2014.
- [3] 이영선, “울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제30권, 제1호, pp.145-170, 2013.
- [4] 이소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제59권, pp.331-354, 2013.
- [5] J. W. Yun, “The Myth of Confucian Capitalism in South Korea: Overworked Elderly and Underworked Youth,” Pacific Affairs, Vol.83, No.2, pp.237-259, 2010.
- [6] P. Rones, L. Wash, and Patrick, Employment Issues in Social Work with the Elderly. AOA Occasional Papers in Gerontology, No.4,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p.2-38, 1980.

- [7] M. E. Altmaier, A. J. Aquino, W. D. Russell, and E. C. Cutrona,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3, No.4, pp.480-489, 1996.
- [8] 황미구, 김은주,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및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삶·직무·사회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제21권, 제3호, pp.137-156, 2008.
- [9] M. Shannon and D. Grierson, "Mandatory Retirement and Older Worker Employ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37, No.3, pp.528-551, 2004.
- [10] 권구영, 최정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삶의 질 간의 관계," *한국노인복지학회*, 제38권, pp.51-77, 2007b.
- [11]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15.
- [12] 고재욱, 이동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31권, 제4호, pp.1209-1228, 2011.
- [13] S. Hiroki, "A Typical Employment: A Source of Flexible Work Opportunities?,"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Vol.4, No.2, pp.161-181, 2001.
- [14] 이석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시간활용 변화와 적극적 노년생활," *노인복지연구*, 제49권, pp.51-79, 2010.
- [15] 심재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2호, pp.197-235, 2013.
- [16] 모선희, "농촌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 제17권, 제1호, pp.94-108, 1997.
- [17] 김상희, *도서관 관리지원 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의정부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8] 이지영, "한국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제4권, 제2호, pp.89-112, 2013.
- [19] 최희진, "민간위탁 계약행위자의 목표일차와 복지서비스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 pp.371-399, 2015.
- [20] 지은정, *한국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고령자를 중심으로*, 노인인력개발원 이슈페이퍼 보고서, 2014.
- [21]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 2014.
- [22] 권구영, 박공식,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7권, 제3호, pp.527-547, 2007a.
- [23]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23-132, 2015.
- [24] 임우석, "도시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도시행정학보*, 제21권, 제2호, pp.371-395, 2008.
- [25] 이환범,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효과성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4호, pp.81-100, 2010.
- [26] 김영선, 강은나,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 효과성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pp.419-435, 2011.
- [27] 정연자, 전정수, "노인 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에 따른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연구학회*, 제28권, 제5호, pp.193-223, 2014.
- [28] 김수영, 이민홍, 손태홍, "고령자 사회참여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3권, 제2호, pp.451-479, 2015.
- [29] 이경진, 황선영,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제12권, 제1호, pp.29-56, 2009.
- [30] 이재영, 김진숙,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일의 미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제58권, pp.353-382, 2012.
- [31]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지지, 정서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